

“전산 장애 안타까워 ... 디지털 전환에 박차”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지방행정 전산 시스템 장애로 곤욕을 치른 정부가 반성문을 내놨다. 이번 장애를 거울삼아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로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와 정부 박람회를 열었다. '정부혁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함께'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전시회는 25일까지 사흘 동안 이어진다.

고진 디플정위원회 위원장(사진)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한 전산 시스템 장애는 아픈 일”이라면서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제도적, 기술적 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방중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10년 가까이 걸리는 긴 호흡의 정책”이라며 “현재 정부 시스템을 옮기기 전까지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작년 9월 출범한 디플정위원회는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실현 계획을 마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사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열었다.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스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서 밝혀 공기관 99곳·IT기업 대거 참여 공공분야 초거대 AI 등 논의

한 뒤 올해 들어 성과 창출을 위해 17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번 전시회는 정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반 공공 서비스와 민간 기업의 서비스를 국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기업,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99개 기관이 참가해 스피어 서비스 스포츠 등 다양한 정부 △안전한 사회 등 새 주제로 전시관을 꾸몄다.

AI를 활용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 공공기관의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한

국관광공사는 AI로 개인 맞춤형 여행 일정과 장소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전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 대상 맞춤형 공공 입찰공고 추천 서비스를,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를 내놨다.

“청년 특별관”에선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 정책 맞춤형 플랫폼과 AI 취업 지원 서비스를 체험하도록 했다. 수천 개의 청년 정책을 한 곳에 모아 개인별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와 워크넷에 등록된 이력서 1900만 건, 구인 공고 580만 건을 분석해 취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잡게어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KT, LG 등 국내에서 초거대 AI를 구축한 주요

기업도 모두 전시관을 마련해 기술 특성과 공공 부문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국민은행, 토스, 뱅크샐러드 등 금융권 기업도 공공 영역과 관련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부대행사로 마련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콘퍼런스에서는 민간 전문가들이 AI를 활용한 공공 서비스 혁신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디플정위원회에서 초거대 AI TF를 이끄는 하정우 네이버를 클라우드 AI노베이션센터장은 “국회와 정부, 지자체가 보유한 문서를 AI가 읽을 수 있도록 가공해 공공분야 특화 초거대 AI를 구축할 방침”이라며 “정부의 정책 입안이 용이해지고 국민도 공공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이승우 기자

CU 해외점포 500곳 넘어섰다

몽골 370호점·말레이 140호점
K푸드 인기로 월 1000만명 방문

가 연 1억5000만 명을 넘길 것이라
CU 예측했다.

CU가 해외 점포망을 빠르게 확장한 배경엔 한국화 전략이 있다. CU는 진출국에서 한류 열풍이 거센 만큼 전체 판매 상품의 50%를 한국 상품으로 구성했다. 말레이시아에선 매출 상위 10개 품목 중 7개가 닭강정, 로제떡볶이, 한국식 치즈 핫도그 등 K푸드다. 한국 즉석조리 식품들이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몽골에선 커피 PB ‘갯커피’ 상품 세 개가 상위 10개 상품에 포함됐다. 몽골 전통 음식을 상품화한 ‘보쑈(찐만두), ‘피로슈키(튀김빵), ‘호쇼르(튀김만두) 등도 인기를 끌고 있다.

CU는 내년부터 몽골과 말레이시아에서 거점 도시 이외의 다른 도시로도 진출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엔 카자흐스탄 1호점 개점을 앞두고 있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해외 진출 지역인 몽골과 말레이시아에서 최근 각각 370호점과 140호점을 열어 점포가 500개를 돌파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올해 두 나라에서의 하루평균 방문자는 750여 명으로 월평균 약 100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1년으로 환산하면 1억 명에 달한다. 점포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내년엔 방문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해외 진출 지역인 몽골과 말레이시아에서 최근 각각 370호점과 140호점을 열어 점포가 500개를 돌파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올해 두 나라에서의 하루평균 방문자는 750여 명으로 월평균 약 100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1년으로 환산하면 1억 명에 달한다. 점포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내년엔 방문자



SKB “아동 영어회화, 게임처럼 연습” SK브로드밴드는 키즈 서비스 B tv 켄(ZEM)에 영어 회화를 연습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어 프리토킹’ 서비스를 무료로 선보인다고 23일 발표했다. 챗GPT를 접목해 맥락에 어긋난 질문에도 척척 답해준다. SK브로드밴드 제공

카카오 제2 데이터센터 무산 시흥 아닌 he지역 물색나서

카카오가 서울대 경기 시흥캠퍼스에서 추진하던 제2 데이터센터(IDC) 설립이 무산됐다. 서울대와 의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데이터센터를 빠르게 늘리겠다는 카카오의 미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는 서울대와 인터넷 데이터센터 설립에 대해 다각도로 협의했으나 다른 지역에 제2 데이터센터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 회사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내에 축구장 약 19배 크기의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지난 9월 경기 안산에 준공한 데이터센터 전력량의 2배 규모인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내년 착공해 2026년 완공하는 게 목표였다. 이주현 기자

“종이빨대 쓰는 카페·음식점, 비용 보전해주자”

친환경 앞장서는 제지 산업 3 이학래 서울대 명예교수 인터뷰 40년 이상 제지산업 연구 매진 “제지·석화업계 갈등 아닌 협력”

“종이 빨대를 쓰겠다는 소상공인에게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학래 서울대 산림과학부 명예교수(사진)는 23일 서울 신사동에서 한국경제 제지신문과 만나 최근 불거진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후퇴와 관련해 이같이 제언했다. 이 교수는 “소상공인이 종이 빨대 구매를 주저하는 이유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비싸서”라며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지 못하겠다며 차액을 지원해줘서 종이 빨대와 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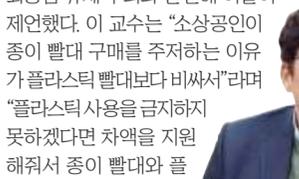
라стик 빨대가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너무 이상적이었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여의찮아지자 원상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번엔 종이 빨대 가공업체들이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40년 이상 제지산업을 연구한 이 교수는 종이의 ‘친환경성’에 대해 정책당국이 더 관심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교수는 “종이는 원료가 바이오 소재여서 태생이 친환경적”이라며 “재활용을 등을 따져보면 플라스틱은 바다 등으로 향하는 오염물질이 쌓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제지업계와 석화화학계

간 대립각이 세워지는 부분은 경계했다. “제로섬이 아니라 손을 잡으면 더 친환경적인 제품이 탄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플라스틱 중 일부만 종이로 대체할 수 있다”며 “다만 플라스틱과 종이를 합쳐 더 친환경적인 제품이 나온다면 양쪽 업계를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종이와 플라스틱을 혼합한 맥주병이 등장한 바 있고 국내에서도 뚜껑은 플라스틱인데 포장재는 종이를 쓰는 화장품 용기가 하나들 나오고 있다.

국내 제지산업은 생산량 기준 세계 7위 수준이지만 최근 중국과 동남아시아 기업들의 진출에 내수시장에서도 지위를 위협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기업끼리 필요에 따라 과감히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형창 기자



“노인 응급상황, 119에 실시간 전송”

옴므 중기 엔티에스 ‘ICU 낙상감지 시스템’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19.5%에 달하는 167만 명의 노인이 독거 형태로 거주 중이다. 65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는 1331명(2020년)이다. 무선통신장비 소프트웨어(SW) 개발사인 엔티에스의 김중환 대표는 “독거노인이 무의식 상태에서 쓰러진다면 아무도 알 수 없다”며 ICU 낙상 감지 시스템을 개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ICU 낙상 감지 시스템(사진)은 낙상, 화재, 침입 감지 및 응급

알림 전송을 실시간으로 처리한다. 거주지의 1.5m 높이 벽에 붙인 다음 전원만 연결하면 된다. 안방, 거실, 화장실에서 노인이나 환자가 갑자기 쓰러지면 낙상 감지 센서가 5초 안에 이를 감지한다. 40초까지 기다린 뒤에도 움직임을 없으면 낙상으로 간주한다. 쓰러진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호자, 사회복지사, 119에 실시간 전송한다. 회사 측이 밝힌 낙상 감지율은 98.6%다.

김 대표는 “낙상을 물리적으로 감지하고 응급 알림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것은 엔티에스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강경주 기자



안전한 SMP개발로 안전을 미니하게 한수 UP!

원전에서 생산한 수소를 클린에너지로 한수 UP!

에너지를 클린하게 안전하게

한국수력원자력

세계 곳곳에 원자력 수출로 한수 UP!

한국수력원자력은 한수 앞선 에너지 기술로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BUSAN IS READY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를 한국수력원자력이 응원합니다